



청소년 도슨트가  
들려주는  
박물관 이야기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자료집 ①

# 청소년 도슨트가 들려주는 박물관 이야기

흙그릇, made in 가야

아이언맨! 가야를 지켜줘

타임머신 타고 무덤 속으로

박물관 "가야에서 살아남기"

무한항해! 글로벌 가야!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 일러두기

---

1. 이 자료집은 2014년 "제6기 우리들의 행복한 박물관-나는 도슨트!"의 활동 결과자료집입니다.
2. 참가 청소년의 창작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국립김해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교육/행사마당>교육자료실
4. 본 저작물은 공동저작물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므로,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 및 변형을 할 수 없습니다.



# 발간사

국립김해박물관은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청소년이 주체가 된 “우리들의 행복한 박물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여섯 번째 프로젝트는 ‘어린이를 위한 전시해설사(도슨트)가 되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도슨트가 되기 위해 3개월 동안 박물관의 문화재를 스스로 탐구하고 어린이들의 전시 관람을 관찰하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해설을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토기, 전쟁, 의례, 생활, 교역 등 5가지 주제로 박물관 속 유물을 이야기로 엮어 가며 직접 대본을 만들고, 2015년 1월 겨울방학을 맞이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전시해설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자신의 재능을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환원한 청소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배움의 목적과 실천에 대해 느꼈을 것 입니다.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창조하고 봉사한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은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번뜩이는 생각과 상상력이 가득 담긴 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립김해박물관은 매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김해박물관장 김 정 완



**토기** >> 흙그릇, made in 가야

도공의 아들 / 최수빈(경남외고) .....	10
도공 부자의 토기 / 박예현(울하중) .....	13
도공의 도구 / 강소아(울하고) .....	16
꿈 속 토기여행 / 양정민(중앙여고) .....	21
국립김해박물관 토기 견학을 다녀와서 / 지혜주(중앙여고) .....	23



**전쟁** >> 아이언맨! 가야를 지켜줘

어느 가야 무사의 애환 / 하현수(삼계중) .....	26
가야 병사의 마지막 일기 / 안현정(능동중) .....	29
가야로의 타임머신 / 박수민(울하고) .....	32
어린 병사의 편지 / 송성목(김해고) .....	38
가야 전쟁, 가야 무기 / 정우진(영운고) .....	40
가야시대 제련소 탐방기 / 이용우(김해중) .....	42



**의례** >> 타임머신 타고 무덤 속으로

두 개의 무덤 / 서은영(중앙여고) .....	46
가야소녀 람이의 일기 / 김요람(제일고) .....	50
아들에게 쓰는 편지 / 이해원(구산중) .....	54
신비한 무덤 속으로 / 오유진(장유중) .....	57

유물을 찾아서 / 정경진(구산중) .....	60
가야의 무덤 속으로 / 강성혜(중앙여고) .....	65
아빠와의 하루하루 / 황주희(봉명중) .....	69



## 생활>> 1박2일 “가야에서 살아남기”

진덕이의 가야생활 / 강민진(김해여고) .....	74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에서나 생겨날 나의 후손들에게 / 조수현(울하중) .....	78
만능형사 Mr.조의의 가야에서 도둑 찾기! / 조수빈(삼문고) .....	85
가야의 삶 탐구하기 / 한한철(장유고) .....	90
가야에서 사는 법 / 김태윤(경남고) .....	96



## 교역>> 무한항해! 글로벌 가야!

가야 바다에서의 미션 / 서영주(김해여고) .....	102
신참을 위한 교역상식 한 스펀! / 이은지(김해여고) .....	104
무역 몬스터-사라진 무역품 / 김영서(중앙여중) .....	108
해반천의 상인 / 조현민(분성중) .....	114
책으로 배우는 가야의 교역 / 이현기(삼정중) .....	116



우리들의 행복한 박물관>> .....	119
----------------------	-----





토기



## 흙그릇, made in 가야

도공의 아들 / 최수빈(경남외고)

도공 부자의 토기 / 박예현(울하중)

도공의 도구 / 강소아(울하고)

꿈 속 토기여행 / 양정민(중앙여고)

국립김해박물관 토기 견학을 다녀와서 / 지혜주(중앙여고)

## 도공의 아들

최수빈 경남외국어고등학교1학년

나는 토기를 만드는 도공(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고 우리 집안은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토기장인 집안이야. 그래서 나도 아직은 어리지만 언젠가는 지금 아빠처럼 훌륭한 도공이 될 거야. 아빠는 아주 옛날의 토기부터 지금 만드시는 토기까지 모르는 게 없으셔. 그리고 아빠의 일터에 놀러 가면 아빠는 항상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하셔. 이곳 가야의 토기 역사에 대해 아빠에게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얘기해주려고 해.

우리 인간들이 토기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음식을 조리해 먹고 저장하기 위해서야. 처음에는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모양과 무늬가 점점 발전하고 달라졌다고 해. 토기는 가마라는 엄청 뜨거운 곳에서 만드는데 굽다가 바닥에 도침이 붙기도 하고 자연 유약이 생기기도 해. 토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만 다르게 하거나 습도를 조금만 다르게 하면 못생긴 토기가 나오거나 새카맣게 타버리는 경우도 있어.

토기에 무늬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 내가 아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빗살무늬토기야. 빗살같이 생긴 무늬가 토기에 새겨져 있는데 이 빗살모양도 엄청 다양해. 이것 말고도 민무늬토기와 덧무늬토기도 있어. 토기



빗살무늬토기

중 밑바닥이 둥근 것이 가장 단순한 형태인데 둥근 바닥 항아리를 받쳐두기 위한 용도로 만드는 것이 그릇받침이야. 길쭉한 원통 모양과 넓은 바리 모양, 화로 모양으로 구분되는데 그릇받침은 가야의 여러 지역마다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

며칠 전에는 아빠의 작업장에서 희한하게 토기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가야 사람들은 글과 기호를 사용했는데 이 토기를 만든 사람이나 집단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어. 나쁜 기운을 물리치거나 그릇을 구울 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다고 해. 어딘가에 우리 할아버지나 아빠의 이름이 새겨진 토기도 있겠지. 또 그 옆에는 집 모양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토기인가? 토기처럼 안 생겼는데. 아빠께 물어보니 토기가 맞다고 하셨어. 이런 것을 상형토기라고 하는데 인물이나 오리, 사슴 같은 동물 또는 집, 배, 수레 등 사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토기라고 해. 이 토기들은 모양만 예쁘고 쓸모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의례과정에서 술



수레바퀴모양토기

이나 물을 담아 따르거나 죽은 사람의 안식과 사후 세계에 대한 상징적인 염원을 표현하는 것이라 했어. 말이 어려웠지만 간단히 말하면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한 물건으로 무덤에 많이 넣는 것이래. 이상하게 생긴 뿔 모양도 있었고 귀여운 집이랑 수레바퀴모양토기도 있었어. 제일 이상한 건 다리모양 토기였어.

내가 제일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는 가야의 각 지역마다 토기 모양이 다르다는 거야. 나는 아라가야에 사는데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굽구멍의 모양이 불꽃모양이라는 거야. 굽구멍 모양 말고도

뚜껍의 손잡이나 토기의 귀 모양, 받침의 모양 등 다른 게 조금씩 있었어. 나는 다른 지역의 토기 모양 특징을 찾는 것이 재미있어서 이제 토기만 보면 어느 지역 토기인지 한 번에 맞출 수 있어. 너네도 해볼래?

그리고 이젠 얼마 전에 안 건데 우리 가야랑 이웃나라인 신라와 교역을 해서 신라의 토기가 가야에 들어왔는데 우리거랑 모양이 조금 달라. 가야 안에서도 지역마다 토기 모양이 다른 거랑 비슷한 이유일까? 아빠 덕분에 신라 토기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른 나라의 토기 모양은 어떨지 궁금해졌어. 지금은 알려져 있는 것이 없지만 어른이 되면 다른 나라의 토기를 찾아서 비교해 볼 거야. 아빠는 항상 나한테 커서 훌륭한 도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 나도 할아버지랑 아빠처럼 예쁘고 튼튼한 토기를 만드는 게 꿈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니까 지금처럼 아빠께 많이 배워서 가야에서 제일 유명한 토기 장인이 될 거야.



## 도공 부자(父子)의 토기

박예현 김해율하중학교 2학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재현이라는 도공(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재현은 나이가 많고 토기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도공이었다. 재현은 자신이 살았던 세월동안 많은 종류의 토기를 만들었으며 그 그릇에 적어도 한번은 음식을 저장하거나 담아 먹었다. 재현은 친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친구도 아버지를 따라 도공이 되어서 재현의 옆에서 돕고 있는 중이었다. 친구는 재현처럼 음식을 담는 그릇에 초점을 두었지만 토기의 외관에도 초점을 두어 만드는 도공이었다.

이날도 역시 친구는 아버지가 토기를 만드는 곳에 가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아버지가 오지 않자 아버지가 만든 토기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방문 바로 옆 벽에 지금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사용되었던 빗살무늬토기와 덧무늬토기가 있었다. 빗살무늬토기와 덧무늬토기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토기로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흙을 구우면 단단해지는 것을 이용하여 빗살무늬토기와 덧무늬토기가 만들어졌다. 그 옆에는 민무늬토기와 덧띠토기가 있었다. 민무늬토기는 거친 흙으로 빚어 한데가마(노출된 가마)에서 구운 토기이며 덧띠토기(점토띠토기)는 입구에 덧띠를 말아붙인 토기로 이 두 토기는 빗살무늬토기 이후 청동기시대에 들어오면서 널리 사용되었다. 민무늬토기 위쪽 긴 상판위에 있는 붉은간토기는 그릇표면에 산화철을 발라 반질거리게 문질러 구운 토기로 민무늬토기보다 먼저 사용되었다. 다른 한쪽에는 철제품이 사용될 때 같이 사용

되었던 짧은목항아리와 긴목항아리, 밀폐된 가마 속에서 천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뚜껑, 꼭지가 붙는 항아리와 뚜껑, 굽다리접시가 있었다. 짧은 목항아리와 긴목항아리는 재현이 젊었을 때 사용하던 것이기도 하였다.

친구가 구경을 거의 끝마쳤을 때 재현이 들어왔다. 재현은 어제 주문받았던 거대항아리를 만들기도 할 겸 친구에게 가마로 토기를 굽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준비해두었던 점토를 주어 항아리 모양을 만들게 하였다. 재현과 친구는 각각 항아리의 모양을 만들고 세부적으로 손질을 한 뒤 무늬를 새겼고 무늬가 다 새겨진 항아리들을 말리기 위해 각각 자리에 놓았다. 다음날 재현은 가마를 데우기 위해 아침에 집을 나서서 토기를 만드는 곳으로 향했다. 재현은 토기가 다 마른 것을 확인한 뒤 가마에 불을 지피 가마의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약간 온도가 높아졌을 때 친구가 재현이 있는 곳으로 왔다. 하지만 아직 토기를 구울 정도의 온도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심때쯤 항아리들을 가마에 넣을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항아리가 구워졌고 다음날은 항아리 하나를 주문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 이번 거대항아리를 만들어 본 이후로 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친구는 늙은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했던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였다. 친구는 자신이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 개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차이를 두기 위해 자신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토기는 자신의 이름을 적는 등 아버지의 토기와 약간 차이가 나게 하였다. 친구가 재현보다 토기를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하였다.

친구가 재현보다 토기를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할 그때 당시의 재현의 나이와 비슷해지면서 친구는 많은 토기를 만들었고 만든 토기들을 수

집하여 모아놓았다. 친구가 만든 토기에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장식품과 상형토기도 있었다. 음식을 담는 그릇 중 밑이 둥근 항아리를 받히기 위해 그릇받침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뚜껑에 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친구주위 도공들 또한 이렇게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잔은 만들기도 하였다. 잔은 손잡이가 있고 아가리가 넓으며 컵형 토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친구가 차나 물을 마실 때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했고 잔 중에는 뿔모양잔 등이 있었다. 상형토기란 어떠한 형태를 본떠 만든 토기로 사후세계에 대한 상징적인 염원을 표현하였으며 상형토기 중에는 뿔모양잔, 수레바퀴모양토기, 등잔모양토기 등이 있다. 친구는 재현과 마찬가지로 먹는 그릇이나 집안을 장식하는 것을 자신이 만든 이러한 토기들을 이용하여 하였다.



잔

## 도공의 도구

강소아 김해울하고등학교 1학년

나는 국립김해박물관에 구경 온 8살 어린이 박수민이다. 박물관에 가면 재미없는 부서진 낡은 것들만 잔뜩 있어서 오늘도 나는 엄마 손에 끌려 박물관에 들어왔다. 엄마 눈을 피해서 탈출하려 화장실로 들어간 나는 그곳에 떨어진 이상한 모양의 돌보기를 줍게 되었다.

수 민 : “그나마 박물관에서 새것 같은 물건 하나 주웠네...”

하지만 나는 곧 나를 찾으러 온 엄마 손에 끌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앞에서부터 돌맹이만 잔뜩 나오는 이 박물관은 삼국시대에서 삼국에도 들어가지 않는 가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수 민 : “핏 나라도 겁나 작으면서 박물관은 웬 박물관.”

그러자 돌보기에 입이 생겼다.

돌보기 :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야도 엄연한 나라이고 한때 가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알아? 특히 가야의 토기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수 민 : “증거를 대 봐 증거가 없잖아.”

돌보기 : “그래 그럼 한번 내 몸에 눈을 대 봐. 유물들이 하나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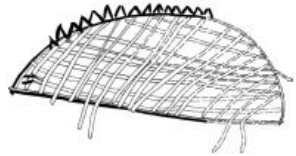
보일거야.”

그러자 한 토기가 눈에 들어왔다.

돋보기 : “봐 이건 빗살무늬토기라고 하는 거야. 구석기 시대에는 없었던 토기들을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곡식이나 다음해에 농사지를 씨앗을 담기 위해 만든거야. 표면으로 더 다가가 볼까? 빗살무늬가 있지? 이건..”

수 민 : “이런 거는 다른 박물관 가면 다 기본으로 있는 거 아니야? 시시해.”

돋보기 : “그럼 이건 어때? 뭐 그려진거 같아?”



수 민 : “음... 그냥 선 여러개인거 같은데.. 바늘을 그린건가?”

돋보기 : “이 바보야. 이건 멧돼지라구 멧돼지! 이걸 그리면서 이 사람들은 먹을 수도 있고 장신구도 만들 수 있는 멧돼지를 많이 잡기를 빌었다지. 이 정도면 희귀하지 않냐? 신기하지?”

수 민 : “뭐,,, 봐줄만하네. 다음건 없어?”

돋보기 : “이건 여러 가지 빗살무늬인데 모양이 많이 다르지? 이건 왜 그럴까?”

수 민 : “무늬가 다른건 만든 사람이 다른거니깐 쓴 사람이 달라서?”

돋보기 : “오 보기보다 똑똑한 걸? ><”

수 민 : “난 이것도 알아. 이 바닥이 둥근 이유가 사람들이 모래가 많은 곳에서 생활해서지?”

돋보기 : “그래 더 가르쳐 줄 것도 없네.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건

또 다르지? 밋밋하고 바닥도 평평하고 붉은 색도 있지? 이건 무늬가 없어서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야. 바닥이 평평한 건 이제 더 이상 모래지역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지. 그리고 빨간 건 표면에 뿔 칠한 건데 방수기능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수 민 : “뭐야.. 재미없어.. 어! 이거는 목에 띠가 있는 건데? 띠가 있으니깐 목띠토기?”

돋보기 : “뭐야.. 니가 더 재미없어,, 이건 덧띠토기라구!! 하지만 이 토기들의 용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아.”

돋보기 : “자자 이번에는 더 회색 빛이군. 이유가 뭘까?”

수 민 : “그건 말이..”

수 민 : “잘난 척 하는 돋보기는 필요 없다!!! 여기 팜플렛을 보니까 가마에서 구워서 그렇다고 나와있네.. 가마는 가만데 왜 회색이지? 돋보기...야”

돋보기 : “난 필요없다며”

수 민 : “미안해.. 왜 그럴까?”

돋보기 : “큘, 앞의 붉은 토기들은 모두 산소가 많은 공간에서 구워져서 그렇고 이거는 밀폐된 공간인 가마에서 구워서 산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까매진 거야”

수 민 : “헛, 이걸 저번에 경주에 가서 슬쩍 봤던 토기랑 비슷한데?”

돋보기 : “맞아 이걸 신라토기야. 이제 이 땅에서 가야가 사라졌다는 거지.. 슬프긴 하지만 신라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모양이 변해간 거라고 할 수 있지”

돋보기 : “벌써 일층을 다 돌았네. 우리 음료수나 한잔..”

수 민 : “위에는 더 많은데... 아쉽네 토기들만 보고 가게 되다  
나..”

돋보기 : “아니 무슨 소리, 어서 2층으로 올라가자!”

수 민 : “오오~ 이건 신기해 짐모양인데?”

돋보기 : “맞아 짐 모양을 본떠서 상형 토기라고 해. 이 집은 2층  
이야, 왜냐하면 짐승들로부터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창고  
였기 때문이지. 이 집에 곡식을 그냥 보관했을까? 그건 아  
니겠지? 여기 엄청 큰 토기가 있지? 큰 니가 들어가도 들  
어가 지겠다.”

수 민 : “뭐야?”

돋보기 : “아니~아니~ 토기가 쭉 크다고.. 그런데 이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려면 곡식이 많아야겠지? 가야 사람들은 그만큼  
부자였던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우하하”

수 민 : “아휴 이 새 모양은 뭐야?”

돋보기 : “이건 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간다고 생각  
해서 무덤에 묻은 토기야.”

수 민 : “오~ 이건 소꿉놀이 장난감인가? 애들이 가지고 노는건  
가?”

돋보기 : “유치하기는. 이건 무덤에서 나온거야. 가난해서 산 동물  
이나 토기를 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묻으면서 죽은 세계  
에서도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어.”

수 민 : “우와~ 이건 뭐지. 완전 신기해.”

돋보기 : “촌스럽긴, 이게 바로 가마야. 이렇게 토기를 구워 내면  
토기가 여기 이렇게 붙을 때도 있고..”

수 민 : “우하하~ 그게 뭐야 나는 잘 할 수 있어”



굽다리접시(아라가야)

돌보기 : “뭘래. 토기 굽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수 민 : “예~예~”

돌보기 : “암튼! 이걸 방지하기 위해 토기 사이에 나뭇잎을 넣기도 하고 재를 넣기도 했고 토기 안에는 받침모루를 넣기도 했어.”

수 민 : “어... 여긴 엄청 신기한걸?”

돌보기 : “그치 여긴 바로 6가야의 토기들을 다 모아 놓은 거야”

수 민 : “모양도 서로 다른데...?”

돌보기 : “맞아 신기하지?”

수 민 : “어... 어? 그러고 보니 다 끝났네?”

돌보기 : “어때? 가야가 아직도 쪼끄만하기만 한 나라야?”

수 민 : “아니 가야는 토기 왕국이야. 다른 박물관과는 비교도 안돼.”

돌보기 : “니가 그렇게 얘기하니 나도 좋네. 그럼 나는 간다~”

수 민 : “그래~ 안녕~”



## 꿈 속 토기여행

양정민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소정이는 꿈속에서 어디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신석기 시대이다. 사람들은 움집을 지어서 살고 있고 농사를 지어 어딘가에 곡식을 저장하는데 더 가까이 가서 보니 곡식을 저장한 곳은 토기였다. 토기의 표면에는 무늬가 있고 밑이 뾰족하여 땅에 묻어서 사용하는 빗살무늬 토기였다.

소정이는 신령에게 이끌려 또 어디론가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는 들판에 고인돌이 보였고, 어떤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손에는 반달돌칼을 들고 벼를 재배하고 있었다. 옆에는 아까 보았던 빗살무늬 토기와 다르게 생긴 토기가 있었다. 그 토기는 끝이 편평하여 땅에 세워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였다.

이번에는 대가야로 갔는데 토기모양이 접시와 뚜껑이 납작하였고 뚜껑에 단추모양과 꼭지모양의 손잡이가 있었다. 소정이는 토기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소정이 앞에는 비화가야가 펼쳐졌다. 비화가야에서도 토기를 보게 되었는데 토기모양은 뚜껑에 창이 뚫려 있었고 굽다리 모양의 손잡이가 있었다. 그리고 굽다리에 사각형 굽구멍이 엇갈리게 뚫려 있었다.

그렇게 토기를 보고 와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일어나보니 아라가야로 와 있었다. 아라가야의 시장을 지나가다가 토기를 파는 가게에서 특이하게 생긴 토기를 보게 되었다. 그 토기는

불꽃무늬의 굽구멍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 옆에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굽구멍을 가지고 있는 토기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소정이는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그것은 소가야의 토기라고 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까지 봤었던 토기들과 다르게 굽다리가 짧고 아가리가 밖으로 꺾여있는 토기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토기는 뭐지? 생각하다가 주인이 이것은 금관가야의 토기라고 하였다.

이렇게 소정이는 토기에도 여러 종류의 토기가 있고 지역마다 토기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재미난 꿈을 꾸었다.



## 국립김해박물관 토기 견학을 다녀와서...

지혜주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2015년 1월 00일

겨울 방학을 맞아 박물관에 토기에 대해서 견학을 가기로 했다. 마침 박물관에서 언니, 오빠들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신청했다. 내가 신청한 것은 ‘토기’이다. 직접 가서 보니 토기가 그 박물관에서는 가장 많았다. 그래서 토기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는 1층에서부터 2층으로 이동하면서 설명을 들었다. 제일 처음 우리는 토기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토기는 곡식의 재배로 인해 남는 생산물들을 저장하고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토기를 보았다. 같은 빗살무늬토기이지만 정말 다른 빗살무늬들도 보았고 뽀족한 바닥을 이용해 모래에 직접 박아 놓은 것을 보았다. 빗살무늬가 다양했던 것은 당시에 사용하고 만들던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이고, 뽀족한 바닥 모양은 해안가에서 살면서 모래에 박아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다음은 청동기 시대의 토기인 민무늬 토기를 보았는데 토기에 무늬도 없어졌고 바닥 모양도 평평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늬의 변화는 살던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때의 문화의 변화이고, 평평한 바닥은 거주 지역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다음부터 봤던 토기

들은 색깔이 앞에서 봤던 것들과 달랐는데 그 이유가 원래는 들판에 불을 지펴서 구웠었는데 토기를 가마 안에서 굽게 된 때부터는 토기의 색이 달라졌다고 들었다.

또한 가야라는 연맹 국가를 형성하면서 각 가야마다의 다른 토기 문화가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토기들 중에서 한 가야의 특징을 알고 토기를 구별해 낼 수 있게 됐다.



전쟁

## 아이언맨! 가야를 지켜줘

- 어느 가야 무사의 애환 / 하현수(삼계중)
- 가야 병사의 마지막 일기 / 안현정(능동중)
- 가야로의 타임머신 / 박수민(울하고)
- 어린 병사의 편지 / 송성목(김해고)
- 가야 전쟁, 가야 무기 / 정우진(영운고)
- 가야시대 제련소 탐방기 / 이용우(김해중)





## 어느 가야 무사의 애환

하현수 김해삼계중학교 3학년

오늘도 또 한 명의 나의 전우가 전장의 이슬이 되어 내 곁을 떠났다. 미처 제거하지 못한 철화살촉이 박혀있는 내 전우의 가슴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의 부러진 철검과 성한데 없는 판갑옷은 당시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죽으면 그의 홀어머니는 도대체 누가 보살핀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어머니께서도 고통스럽겠지만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나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내가 그의 집에 막 들어섰을 때 나는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몸으로 전쟁에서 고생한 아들을 위해 직접 떡메로 찹쌀을 찧어 손잡이가 붙은 시루에 아들이 좋아하는 떡을 찌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판갑옷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찰나에 그의 홀어머니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아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고, 그렇게 몇 초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홀어머니가 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 아들 어디 있느냐며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울 기력조차 없으신지 마치 녀를 잃은 사람처럼 전쟁터 쪽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우의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전사하셨다고 들었는데, 하나 밖에 없는 아

들마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그 기분 오죽할까 싶었다.

며칠 뒤 전우의 장례의식이 치러졌다. 전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저 수레바퀴모양토기와 오리모양토기, 그리고 몇 가지 음식들이 굽다리접시에 담겨져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홀어머니는 그저 서럽게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장례의식의 마지막 단계로 전우를 땅에 묻기 위해 철삽과 괭이 그리고 살포를 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다. 이제 정말 전우와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싸늘한 전우의 시신 앞에 두고 차마 인사를 할 수 없었기에 나는 그저 전우에게 마지막 선물로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나의 방두대도를 전우와 함께 묻어주었다. 전우의 무덤을 바라보며 전우를 잃은 것에 슬프기도 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저것이 미래의 내 모습이 될까봐 두렵기도 하였다. 그렇게 전우의 장례의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출정명령이 떨어졌다.

아, 무능한 왕들로 인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하지만 군인의 신분으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이 동맹을 맺어 외세의 침략을 방어해도 국가를 얼마동안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 무능한 가야 6국의 왕들은 이 좁은 가야 땅덩어리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공격하고 싸우고 있었다. 서로 동맹을 맺어 연합군을 조직하여 북진정책을 펼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 방어적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인가! 나는 이 무능한 왕들에게, 이 무능한 국가에게 다시 한 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불쌍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왕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탐욕스러운 왕들의 야망을 펼치기 위한 이 전쟁에 그저 왕의 꼭두각시처럼 싸워야 하는 내 운명이 그저 한심하게만 느껴졌다.

군장을 챙기고 전쟁터로 나가려는데, 아내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아내의 두 볼에 흐르는 눈물방울을 보니 내 마음도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가야만 한다. 저번 전쟁의 공으로 왕에게 하사 받은 수정 목걸이를 아내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다.

“여보, 다녀오리다.”



## 가야 병사의 마지막 일기

안현정 김해능동중학교 3학년

철의 왕국, 가야는 신라와의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 안현정은 전쟁에 다시 가기 전 죽을 위기를 느껴 글을 쓰기로 하는데...

철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인 우리 가야는 신라 외의 다른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린다. 우리는 철로 각종 무기와 갑옷들을 철과 우리 왕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철이 생산되기 전에는 청동으로도 만들었지만, 청동은 제사 등에 쓰이고 귀하여 주로 돌로 무기를 만들었다. 돌로 무기를 만들려면 더 단단한 곳에 부딪혀 돌을 깨트릴 수도 있지만, 갈아서 만들면 좀 더 원하는 무기를 세밀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후에 청동으로도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청동무기는 요령식



한국식동검

동검과 한국식동검이 있다. 요령식 동검은 중국 요령 지방에서 건너왔다. 건너올 때 소문과 달리 그리 비파 같지 않아서 실망하였다. 우리는 북쪽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자 요령식 동검을 본떠 한국식 동검을 만들었다. 비파형 동검은 날이 구부정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점을 수정해 세형동검이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는 철제품을 만들 때 철포라고 할 수 있는 덩이쇠를 만들었다. 다른 나라에 팔기까지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청동검으로 싸우다 철검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철도 그리 단단하지 않아 잘 부러지곤 했다. 고리모양이나 용, 봉황 등으로 장식된 긴 철검은 장군들이나 쓰는 위협용 무기였다.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무기를 들고 그대로 나가 싸울 수는 없었다. 다른 나라 병사가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갑옷이다. 갑옷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었다. 짐승을 죽여 가죽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깎아 만든 갑옷은 없는 것보단 나왔지만, 철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자 철포도 갑옷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철포를 각자의 몸에 맞도록 몸에 맞게 잘라 쇠못이나 가죽 끈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생각해 낸 갑옷은 바로 수많은 철포들을 작게 잘라 끈으로 연결해 옷과 같이 만드는 것이었다. 꼭 물고기 비늘 같은 갑옷은 편해 보였다. 나는 철이 많이 없어 못 입었는데, 장군과 함께 말이 입고 있었다. 우리도 못 입은 그것을…. 우리는 검 외에도 화살 같은 것으로도 싸웠는데 기병이 타고 있는 말은 그 공격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몸 가리는 갑옷 외에도 몸의 다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와 목가리개도 썼다.

이처럼 가야의 자랑, 철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바로, 주조와 단조이다. 주조는 그 유명한 덩이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거푸집에 녹인 철을 부어 굳히는 것이다. 만들기 쉽지만, 단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단조라는 방법이 있었다. 완전히 녹이는 게 아니라 불에 달구었다가 망치로 모양을 변형시켜 다시 물에 식히고 이것을 반복하는 작업이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지만, 아주 단단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

다. 비록 연맹왕국이 이번 전쟁에 지더라도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철을 개발한 우리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 가야로의 타임머신

박수민 김해올하고등학교 1학년

타임머신이 개발되어 역사를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을 가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가야에 가서 가야의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고 오기로 하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을 안내할 박수민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내를 해 주실 선생님이 오셨다. 드디어 가야로의 시간여행을 떠난다.

‘제일 처음 본 것은 지금의 가야지역에서 돌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였다. 석기 시대인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선생님이 설명해주셨다.

“지금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이 많이 귀해서 돌로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어 사용했답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지만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도 있습니다. 저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청동검이 보이나요?”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는 쪽을 바라보니 어떤 남자가 청동검을 들고 있었다.

“중국의 문화를 본떠 만든 요령식동검으로 비파형동검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청동기 문화가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중국의 문화를 따라했었어요. 다음으로 철기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철기 시대로 이동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군사들의 무기가 저장되어 있는 무기고였다. 그 곳에는 창이나 화살, 여러 검들이 있었다.

“저 창은 철투겁창이라고 해요. 삼국시대 때 많이 사용되었던 창이죠. 화살촉들은 철기시대에서는 대부분 철로 만들어졌어요. 검들은 때는 용도보다는 찌르는 용도로 사용되서 짧게 나왔죠. 밖으로 나가 볼까요?”

밖으로 나오니 부족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청동검을 들고 있었다. 아까 청동기 시대에서 봤던 동검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저 검은 한국식동검인 세형동검이에요. 한국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로 만들어진 동검이죠. 저 검은 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 명

의 남자들이 네모난 철들을 옮기고 있었다. 덩이쇠인 것 같았다.

“선생님, 저 쇠들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 철들은 지금 수출하기 위해 배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렇게 우수한 덩이쇠는 가야만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수출을 해 경제적 이익을 챙겼거든요. 하지만 저 덩이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힘으로 빼앗아서 공짜로 가지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신분이 높아 보이는 장군이 이때까지 본 검들과는 다른 긴 칼을 허리 옆에 차고 있었다. 저건 뭐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았다.

“저 검은 뭔가요? 다른 검들과는 길이부터가 다른데....”



미늘쇠

우리는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았다.

“그거는 방두대도라는 검이에요. 다른 검과는 다르게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검이라서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미늘쇠라는 무기도 있는데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다른 특수한 용도에 사용했을 것 같아요. 무기로 쓰기에는 날이 무디고 생긴 것도 무기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을의 중심을 지나고 있었는데 제사

장이 모여서 어떤 것을 하고 있었다,

“앵, 저건 뭐지?”

“아~ 점을 치고 있네.”

“점이요?”

“응. 점을 치고 있는거예요. 복골이라고 점을 치는 뼈가 있는데 마  
을에 중요한 일이 있나보네요.”

호오라~ 점이라... 가야시대에도 점이 있었구나.

선생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토기 얘기를 꺼내셨다.

“여러분 가야의 각 나라 토기들을 보면 왜 가야가 멸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 뭔데요?”

“가야의 토기들은 각각 모양이 다르지요? 그것은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서로 힘을 합치지 않았다는 의미지요. 서로 힘을 합쳐 싸워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텐데, 힘을 합치지 않았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그렇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걷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다.

“혹시 수레바퀴모양토기를 본 적 있나요?”

“예. 지난번에 책으로 한번 봤어요.”

“그 토기는 실제 수레를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시대에는 수레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수레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수레바퀴모양토기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갑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보였다. 남자의 갑옷의 무늬는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생겼었다.

“선생님, 저 갑옷은 뭐예요?”

“저 갑옷은 비늘갑옷이에요. 철로 만들어진 가야의 갑옷은 몸통을 가리는 갑옷, 목을 가려주는 갑옷, 어깨를 보호해주는 갑옷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판갑옷이라는 갑옷이 있는데 움직이기도 편했고 각자의 체구에 맞춰서 입을 수 있었어요. 그 판갑옷이 발전한 것이 저 비늘갑옷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기 가는 말은 왜 갑옷을 입고 있어요?”

“가야 시대 때는 말도 하나의 소중한 재산이었거든요. 저 말은 지금 전쟁 준비 중이라서 입힌 것 같은데 말의 존재가 전쟁에서는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존재였어.”

우리는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여러분, 모두 재미있게 둘러 보고 왔나요?”

“예!”

“여러분, 가야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야만이 가지고 있는 철을 제조하는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이 가야가 500년 동안 다른 나라들과 존재하게 한거죠. 철을 제조하여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로 가야를 지켜낸 거예요.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가야시대의 탐방을 마쳤다. 오늘 가야에 대해 배운 것은 잊지 못할 것 같았다.



## 어린 병사의 편지

송성목 김해고등학교 2학년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4명의 기마병들과 함께 쇄투검창 이라는 날카롭고 무서운 무기로 적을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쇄투검창에 찔려 죽는 사람들의 비명이 저의 고막을 찢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귓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적은 날카로운 쇄칼과 화살에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그깟 덩이쇠와 교역환경이 뭐라고요.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제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부서진 판갑옷과 비늘 갑옷을 손수 수리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갑옷들을 수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수리한 갑옷을 착용하면서 왜 오리모양토기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 곁에 같이 묻히는 오리모양토기를...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고구려군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도 못 만나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

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마갑과 말머리가리개를 장착한 고구려 기마병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 가야 전쟁, 가야 무기

정우진 김해영운고등학교 2학년

‘영덕’하면 대게가 생각이 나듯이, 가야 하면 철이 생각이 난다. 가야는 옛날부터 질 좋은 철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가야는 이 철을 가지고 실생활의 많은 곳에 썼겠지만 주로 전쟁에 사용했다고 한다. 그럼 가야가 싸워 온 전쟁과 전쟁에 쓰던 무기에 대해 알아보자.

가야는 잦은 전쟁을 많이 겪었지만 그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전쟁이 있다. 하나는 ‘포상팔국의 전쟁’이다. ‘포상팔국의 전쟁’은 낙랑(중국)이 고구려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낙랑(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 오던 금관가야가 선진문물을 받지 못하자 금관가야의 위상이 흔들리고 금관가야에 대항하는 8개의 가야들과 전쟁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고구려의 남하 과정에서 고구려와 가야가 싸운 전쟁이다. 여기서 가야가 크게 패해 가야의 주도권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된다. 고구려에게는 패했지만 가야 사람들은 고구려 군대를 보고 마갑이나 삼지창, 비늘갑옷을 만들게 된다.

이제는 가야의 무기에 대해 알아보자. 철을 쓰기 전에는 청동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청동의 특성상 잘 부서지기 때문에 짧고 찌르는데 사용을 했다고 한다. 가야에서 쓴 청동검은 초창기에는 중국의 요령식 청동검을 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식 청동검을 쓰게 된다. 동검들은 몸통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부착 하여 사용을 했다고 한다.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자 철검이나 투겁창, 격창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투겁창은 나무 막대기에 끼워 적



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에 유리해 널리 오랫동안 쓰였다고 한다. 짧은 철검으로는 말 위의 적을 죽이기 힘들어 꺾창을 이용해 적을 찍어 끌어내려 싸웠다고 한다.

전쟁에서 무기만큼이나 중요한 갑옷이 있다. 가야는 몸 가리개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 가리개를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처음에 나온 목 가리개는 몸 가리개와 붙어 있었지만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따로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고구려와 전쟁 이후 나타나게 되는 비늘 갑옷은 물고기의 비늘을 닮았다고 해서 비늘 갑옷이다. 비늘갑옷은 주로 말을 탄 병사가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었다고 한다. 또 전쟁 이후 나타나는 말 갑옷은 말이 죽으면 말 위의 병사가 낙마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입혔다고 한다. 이렇게 가야는 철을 무기와 갑옷 등 여러 곳에 사용하여 주변의 나라들과 싸웠다.



말머리가리개



## 가야시대 제련소 탐방기

이용우 김해중학교 2학년

안녕 애들아. 나는 철의 왕국 가야시대의 제련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철이야. 만나서 반가워. 가야시대의 전쟁에 대해서 아니?? 모른다면 내가 조금 설명해줄게. 일단 내가 일하는 제련소로 가자 내가 일하는 제련소는 가야에서 제일 큰 제련소야. 나는 제련소에서 무기를 만드는 담당을 맡고 있어. 자~ 다 왔다! 여기가 내 제련소야. 어때?? 정말 크지?? 이제부터 설명해줄게.

이 큰 가마를 봐. 여기서 철을 제작해. 숯, 철광석을 넣고 송풍관을 통해 바람을 계속 불어 넣으면 철물이 돼. 철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첫 번째 단계는 ‘주조’라고 하는 단계야. 철을 틀에 넣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그 다음은 ‘단조’라는 단계를 거쳐야해. 주조를 거쳐 만든 철판을 망치로 두드려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그럼 이제 단조를 거쳐 나온 철로 만든 무기들을 보여줄게. 여기 갑옷이야. 많은 철 조각에다가 구멍을 내어 가죽을 꿰는 비늘갑옷이야.

이 멋진 창 이름은 뭘까? 바로, 철투겁창이야. 투겁은 긴 막대기에 무언가를 끼운다는 말이야. 그래서 철투겁창이지. 그리고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머리가리개와 말갑옷도 만들었어.



철투겁창

엇!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또 전쟁이 일어났나봐. 우리 가야는 우수한 철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가야의 철을 빼앗으려고 해. 이번엔 누구지?? 신라구나. 큰일이다! 빨리 우리가 만든 무기들을 가져다가 군사들에게 나눠주자. 너도 얼른 따라와. 여기 계속 있다간 우리가 위험해져~ 빨리 따라와~

자, 너도 어서 무기를 우리 군사들에게 빨리 나눠줘. 휴~ 일단 무기는 다 나눠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전쟁의 상황을 지켜보자. 저길 봐. 비늘갑옷을 입고 있는 군사가 화살이나 칼에 맞아도 죽지 않아. 비늘갑옷이 촘촘하게 꿰매져 있어서 잘 뚫지 못해. 그리고 우리 군사들의 말이 말갑옷과 말머리가리개를 쓰고 있어서 화살에 잘 맞지 않고 있어. 또 철투겁창으로 멀리서 오는 병사들을 공격하고 있어. 저것 봐! 신라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잖아.

참 다행이야. 그런데 이제 나는 가 봐야 할 것 같아. 철의 왕국 가야를 잊지 말아줘. 그럼 안녕~~